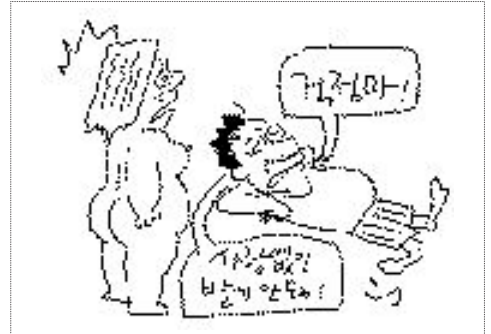




박소현의 섹.시.토크

“난 사랑하는 여자 아니면 발기도 안 되는 사람이야.”
연애시절 남편이 했던 말을 N은 아직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결혼하면 바람 안 핏겨지? 나만 사랑할거지?”
그녀가 옆구리를 찔러가며 물었을 때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했던 그 말, 그 말을 믿고 결혼했고, 그 말이 의지하며 애를 키우고 살았다.
그때 친구들이 아무리 남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매일 주스와 비밀 번호 하나쯤은 외우고 있어야 한다, 등의 ‘남편 지키기 행동강령’을 읊어주어도 끄덕도 하지 않았다.
이제 결혼한 지 9년차, 직장생활도 3년, 6년, 9년, 이렇게 홀수로 고비가 찾아온다더니 결혼생활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봐도 시큰둥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제외하면 딱히 할 말도 없고, 당연히 잡자라도 심할 정도로 뜬금없었다.
지금껏 늘 남편이 원할 때만 응하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원하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던 것이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N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려다 마음먹었다. 그래서 주말 밤

을 택해 애들을 일찍 재운 뒤 무릎 꿇어 나온 바지도 벗어던지고 침대 위에서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펼쳤다. 평생 안 해본 짓인데다 너무 오랜만에 시도하는 잡자라도 어색하고 부끄럽긴 했지만 평생 안 하던 사람이 아니라 남편도 적당한 자극을 받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아내의 은근한 손길을 느낀 남편은 갑자기 몸을 돌아누우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식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농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당황한 그녀가 물었다.
“당신 나 사랑해?”
남편은 잠이 가득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식구끼리는 그런 거 묻는 거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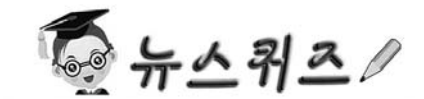
그날로부터 며칠 뒤, 모임에서 만난 N은 우리에게 물었다.
“그럼 식구끼리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거니?”
“같이 밥 먹고, TV 보면서 웃고, 손만 잡고 자고... 그런 것 만 바라나 보네.”
“애들 잘 키우고 집안 살림 잘 하면서 말이야.”
“여자 역할은 포기하고 아내, 엄마, 며느리 역할만 열심히 하라는 거지.”

“사랑해서 기꺼이 한 식구 되지만 사랑의 행위는 줄어만 가고...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면 발기도 안 된다’는 맹세 부질없어”

우리의 결론은 ‘네 남편 참 못했다.’로 났다. 그런데 진짜 못한 점은 한 달 뒤에나 밝혀졌다. 알고 보니 그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을 들긴 직후, 그 여자를 사랑하냐는 N의 질문에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 뿐이라고 손발을 짝씩 빌며 말했다.

식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다 고 한다.
“사랑하는 여자 아니면 발기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여자 앞에선 발기가 아니라 용기 한 거니?”
훗날 N의 이 유명한 대사를 전해들은 우리는 모두 폭소를 터뜨렸지만, 그와 동시에 씁쓸한 감정도 같이 느껴야 했다.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던 그 귀엽고 순결하던 청년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사랑해서 기꺼이 한 식구가 되지만 식구가 되는 순간 사랑의 맹세나 사랑의 행위는 줄어만 간다. 그때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이제는 사랑해서 오히려 안 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유일한 진실이 뭐지 아니? 바로 맹세의 부질없음이야. 9년 전에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던 건데 그 건 잊어버려. 앞으로도 네 남편에게서는 발기든 용기든 끊임없이 일어날 테니까 잘 참시해. 그게 바로 식구가 해야 할 소임이야.”
정곡을 찌른 다른 친구의 말이다. 서글프지만 어쩔잖아? 이것이 진실이고, 진실은 원래 아픈 법이다.
<연재칼럼리스트>



74. 해리포터 시리즈 완결편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도'들이 지난 21일 오전 8시(한국시간) 한국을 비롯, 전세계에서 동시에 출간됐습니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제1권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부터 제6권 '해리 포터와 혼혈왕자'까지 무려 3억2천500만권이 팔렸습니...

- ①조앤 롤링 ②다니엘 래드클리프
③엠폴 왓슨 ④루퍼트 그린트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27일(음 6월 14일 壬戌)

Table with 1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for the day. Includes signs like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검색절정 키워드

영화 '해리포터'를 패러디한 랩송을 작곡한 한국인 유학생 정중환(31)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가 만들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해리 포터 인 더 후드(Harry Potter in the Hood)'란 패러디송 뮤직 비디오가 선풍적 인기를 끌며 미국 ABC 방송에 소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동영상 뮤직비디오 클릭 수는 26일 10만 건에 달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동영상 코너에도 정씨의 동영상 및 미국 방송에 소개된 영상이 함께 퍼날라지고 있다.

영화 '해리포터' 패러디 랩송 작곡 정중환씨는

한양대 재학 중 음악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음대에 진학한 뒤 미국에서 영화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중환씨의 홈페이지를 찾은 네티즌도 많았다.
2007 아시아안팎과 관련, 이라크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한 한국 대표팀이 일본과 3·4위전을 치르며 되면서 한일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절대 질 수 없는' 일본전에 패할 경우 지금껏 무기력하게 펼쳐졌던 경기에 대한 비판이 한꺼번에 쏟아질 우려도 높다.
또 이라크전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염기훈 선수 등도 검색어에 포함됐다.



한국인 유학생 정중환씨가 작곡한 해리포터 패러디 뮤직비디오.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sequence of moves numbered 1 through 42. Includes a legend for '참고도 1' and '참고도 2'.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sequence of moves numbered 1 through 16. Includes a legend for '참고도 1' and '참고도 2'.

바둑소식 (Go News) section featuring a match between Jin Dong-gu and Osram Ba 4th round. Includes text about the match and a photo of the players.

굿모닝 잉글리쉬 <957> section with English conversation practice. Includes questions like 'When is the best time for me to call?' and '언제쯤 전화를 거는 것이 좋겠습니까?' with sample dialogues and answers.

오하오우 니혼고 <957> section with Japanese conversation practice. Includes a dialogue about a child and a lost item, with Japanese text and English translations.

니하오 쑹구위 <147> section with Chinese conversation practice. Includes a dialogue about going to eat mushroom chicken soup, with Chinese text and English translations.

한자 이야기 <574> section with Korean language lessons. Includes a lesson on the word '담합' (collusion) with definitions and example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and text about skin care products.